

## 사설

## 늦었지만 AI 위원회에 바라는 것

지난 27일 고령연찬회에서 우리 학교가 AI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생성형 AI 플랫폼 시범 도입안을 3가지로 구체화하며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우리 학교 AI 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서울대는 이미 6년 전에 AI 위원회를 설치해 AI 기반 교육, 행정, 연구를 총괄하고 있으며 범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서관 챗봇 및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 역시 올해 인공지능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학습지원 도구와 AI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 학교는 이제야 생성형 AI 플랫폼의 시범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다. 그마저도 공대가 지난 4월 선제적으로 AI 위원회를 출범시켜 실험적 기능들을 구현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공대는 지난 4월 자체 AI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규정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규정 검색용 LLM을 개발해 1차 베타 버전을 행정실에 배포했다.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지원 도구로 기능하며 제한적이지만 진정한 범용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본부 차원의 플랫폼 도입 논의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고령연찬회 당시 정보처 측의 답변에 따르면,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하더라도 e-캠퍼스, 중앙도서관 등 학내 핵심 플랫폼과는 직접 연동이 어려워 각 부서가 별도로 챗봇을 구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범용 플랫폼'이라는 명칭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다. AI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부서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AI 위원회는 이제 단순한 도입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설계와 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정보처가 설명한 '분절된' 접근 방식으로는 결코 대학 차원의 AI 생태계를 완성할 수 없다.

AI 위원회는 이제 단순한 도입

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설계와 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연찬회에 언급된 'Mind Logic'사의 범용 생성형 AI 플랫폼 'FactChat'은 교수 개인이 특정 과목의 AI 에이전트를 구성해 플랫폼 내 스토어에 게시하고 수강생들과 공유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고 교수-학생 간 정보 순환을 자동화하는 교육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

AI는 이제 단순히 운영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닌, 대학의 운영 철학과 지식 생산 방식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해야 한다. 플랫폼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통합적이고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범용성과 연결성,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체감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AI 위원회는 그저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 세시봉

## 공감의 한계



박서연 기자  
syeon153@khu.ac.kr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챗봇'이 인기를 끌며 'AI 정신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AI와 장시간 대화한 일부 사용자들이 망상적 사고로 현실 감각을 잃는 현상을 말한다. 부작용은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한 정신건강 전문의는 챗봇과의 대화를 계기로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고민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챗피티와 대화를 나누다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챗피티랑 사귀고 싶다"는 게시글이 넘쳐난다. 치료의 효과보다, 무슨 말이든 사용자의 말에 사람처럼 공감해 주는 AI의 '무지성 공감'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그런 AI의 무조건적인 공감은 수용하기에 편하다. 하지만 지성 없는 공감은 위험하다. AI 챗봇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발언을 조건 없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맞장구치도록 설계됐다. 사람 같은 AI의 진심 어린 공감으로 사용자는 무심코 던진 자신의 발언에 확신을 갖게 된다. 자기 편향을 강화하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한 남성이 300시간 넘게 챗봇과 대화를 나누다 '세상을 바꿀 수학 이론'을 발견했다고 주변에 알리다가, 망상임을 자각한 경우도 있다.

공감은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결책을 정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AI가 사용자의 말에 공감하며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는 사례는 그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공감 자체가 행동의 동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AI의 '시스템화'된 공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공감으로서 얻는 효과와 이를 위한 행동은 별개의 영역이다.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 행동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에서, 주도적 생각과 판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인간의 현명한 의사 결정을 위한 이성 필요하다. 살아있는 지능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혜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곧 생각의 주도권이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AI의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게 하는 제도적 차원의 'AI 리터러시' 교육 또한 중요하다. 500년 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던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인가탐' 전자책 발간과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인식의 출발점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필수교양 '인간의 가치 탐색' 교재가 전자책으로 나온다. 그동안 교재의 저자인 후마 교재편찬위원회는 불법 복제를 우려해 전자책 제작을 꺼려왔지만, 전자책 시류와 학생 편의를 고려해 내리게 된 결정이다. 이번 전자책 발간이 저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교재를 구매하는 문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 교양 필수 과목 서적의 불법 복제가 반복된다면 우리 학교만의 독자적인 교양교육 브랜드를 우리 손으로 망치는 셈이다. 불법 복제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웹툰 시장을 떠올릴 수 있다. 지난 2018년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의 월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기며 네이버·카카오 등 정식 플랫폼보다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결국 국내 웹툰 유료 소비

저하로 이어졌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력이 떨어져 국내 웹툰 성장세는 기대보다 늦어졌다.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당시 경찰 추산으로 약 2,400억 원 이상이었다.

『미생』을 그린 윤태호 작가는 불법 복제가 화두로 올랐던 당시 "이대로면 국내 만화계가 5년 안에 고사한다"며 심각성을 토로했다. 교재 불법 복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저자의 집필 의욕을 꺾고 우리 학교의 발전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출판문화원은 학생이 종이책을 pdf로 변환해 서로 거래하는 방식이 성행하던 최근까지,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전자책 도입으로 불법 복제의 문턱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특강을 준비할 정도로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마련해준 만큼, 학생은 저작권 인식을 토대로 성숙한 학습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



양여진

만평 학생들의 성숙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기대한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